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26일) 2018년 9월 5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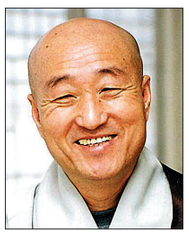


조계사 안팎에 울린 다른 목소리 8월 26일 조계사 안팎에서는 다른 목소리와 구호의 대규모 법회들이 열렸다.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조계종 집행부를 비롯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이 종정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사부대중 1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와 성찰, 종단 안정을 위한 교권수호 결의대회'(왼쪽 사진)를 봉행했다. 조계사 밖에서는 사부대중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국민대참회와 종단 개혁을 위한 전국승려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쪽은 '교권수호'를, 다른 한쪽은 '적폐청산'을 외쳤다. 종단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시작된 조계종 내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2면〉 특별취재팀= 신성민, 노덕현,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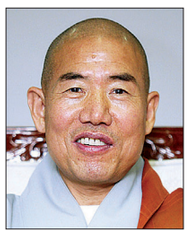
하마평만 무성… 유력인물 '오리무중'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선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면 스님


지원 스님


보선 스님


원행 스님

후보등록 앞서 후보군 압축
일면 · 지원 · 보선 · 원행 스님
합종연횡 가능성 배제 못해

불교광장도 후보 추천 '조심'
범계의혹 전임자 사퇴 따라
선거에서 도덕성 영향 클 듯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로 수장 궐위상태에 빠진 조계종이 차기 총무원장선거 초읽기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선거일이 9월 28일로 확정된 가운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곳곳에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교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차기총무원장 후보는 원로의원 일면 스님,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 해남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 대략 4명으로 압축된다. 물론 후보자 등록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이합집산과 합종연횡 가능성이 높아져 변수를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까지 언급된 스님들은 종단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차기 총무원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무원장선거 2주 뒤에 제17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열리는 데다 중앙종회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 또한 올해는 직접적인 후보 추천을 지양하는 분위기여서 유력인물로 꼽히는 인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원로의원 일면 스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명나눔 전법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스님은 1964년과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제9~13대 중앙종회의원, 교육원장,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봉선사 주지 등 종단 내외 주요 소임을 거쳤다. 특히 초대 군종특별교구장을 맡아 군포교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특히 일면 스님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서 생명나눔운동을 이끌고 있다. 2000년 간 이식수술을 통해 새 삶을 얻은 스님은 여생을 생명나눔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前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포교 역군(役軍)으로 불린다. 스님은 1964년 범어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원 포교국장, 제9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장, 칠장사 · 법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원 스님은 40여 년간 포교활동을 하면서 어린이 · 청소년법회 개설을 비롯해 합창단 순회공연, 건강 템플스테이 등 시대를 앞선 포교방편을 기획했다. 또한 미얀마 청소년들을 위해 컴퓨터와 프린터를 기증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 한인청소년과 외국인 2세를 위한 '재외교포 한민족 전통문화체험 수련회' 등 해외포교에도 힘을 쏟았다.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은 수행력과 종단운영 경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스님은 1966년 용암사서 천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용암사 · 봉암사 · 송광사 · 마곡사 · 백담사 무문관 · 대흥사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40안거 이상 성만한 수행자로 꼽힌다. 또한 총무원 호법부장과 대흥사 주지, 제14~15대 중앙종회의장,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로의원을 맡고 있다.

보선 스님은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해 자승 스님과 경쟁하면서 '총무원장이 갖춰야 할 도덕성'을 기치로 내세운 바 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은 현재 종단 요직을 수행하고 있어 행정에 가장 밝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원행 스님은 1973년 법주사서 월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장,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금산사 주지, 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나눔의집 원장과 국제평화인권센터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경력이 풍부하다.

한편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범계의혹으로 인한 전임자의 사퇴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지도자급 스님들의 추문과 이에 따라 전개되는 개혁운동 등으로 극한의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봉합할 수 있는 덕장의 면모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 령

명) 편집국 취재부 김 지 원 수습해제
2018년 8월 27일 부
이상 1명

DMZ서 '명상' 평화축전 열린다

참선지도자協, 10월 13일 세계평화명상대전

분단의 상징 DMZ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평화명상대전이 열린다. 한국참선지도자협회(협회장 각산)는 8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DMZ세계평화명상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은 세계 4대 명상스승으로 꼽히는 태국 아잔 간하, 영국 아잔 브람, 한국 혜국 스님, 대만 심도 선사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명상행사다. 참가인원만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계평화명상대전에 참가하는 아잔 간하는 숲 속에서 홀로 수행시 수백 마리의 뱀을 조용히 고개 숙이게 만든 일화가 전해지는 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다. 아잔 브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 100인 중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심도 선사는 대만 세계통합불교 선구자로 일컬어진다. 한국불교를 대표해서는 간화선 대종장인 혜국 스님이 나선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에서 명상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명상선도자 각산 스님의 참선수행 및 명상지도도 마련된다.

각산 스님은 대회에 참석한 이들을 DMZ걷기명상을 비롯해 무차토론, 즉문즉설 담마토크 등 명상의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세계명상대전 대회장인 각산 스님은 "이번 행사는 명망 높은 세계적 선승들의 수행지도를 통해 현대인들의 지친 영혼과 아픔을 치유 하는 불교명상의 참선의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DMZ세계평화명상대전 참가비는 무료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또 신청자 선착순 5,000명에 한해 금동 부처님 기념 펜던트가 제공되며 참가자 편의를 위해 경의선 문산역부터 행사장 간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이번 세계평화명상대전은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의 '세계명상힐링캠프'와도 연계해 집중적인 명상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명상힐링캠프는 DMZ걷기명상 후 하이원 리조트에서 3박4일간 별도로 신청한 700명의 수행자들이 참가한다.

(02)451-0203 **노덕현 기자**


사진 왼쪽부터 혜국 스님, 아잔 브람, 각산 스님, 아잔 간하, 심도 선사.

